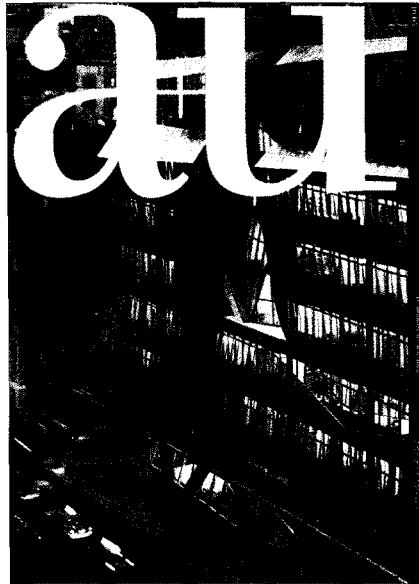


a+u



새로운 방향성: 뉴욕의 지속가능성과 테크놀로지

High Line, 한때 과거의 유산으로써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버려졌던 화물 운송용 고가철도가 2009년 새로운 공원에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 사회공공시설과 야생 식물간의 대조는 도시와 'Green: 자연' 간의 완벽하고도 새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듯 보이며 뉴욕 시의 역사를 상기시켜 준다. 주변 지역에는 호텔, 패션 브랜드 오피스 및 회사 사옥 등이 완공되었고, 유명한 건축사가 디자인한 고급 콘도미니엄들이 곧 완공될 예정이다. High Line의 두 번째 단계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1년 오픈 할 예정이며 뉴욕 시는 세 번째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뉴욕의 지속가능성과 테크놀로지며 이러한 것들은 High Line과 그 주변 빌딩들뿐만 아니라 The Cooper Union and Barnard College의 새 학술 연구 빌딩과 Museum of Modern Art 증축 프로젝트 및 맨해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Beekman Tower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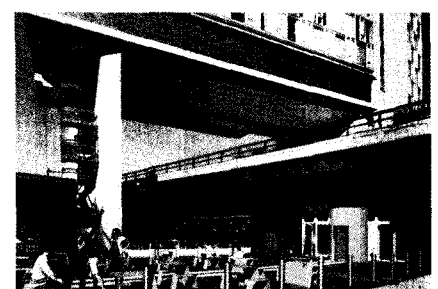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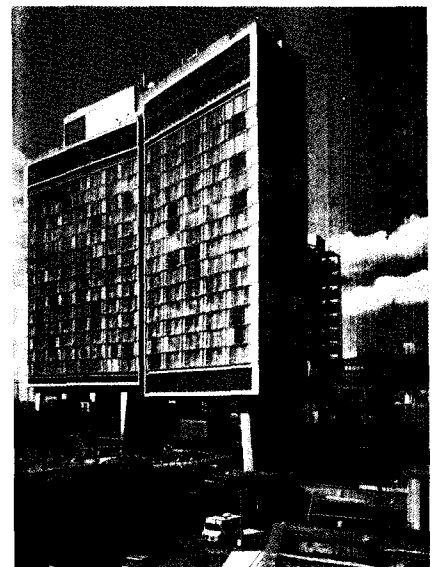
이번 호부터 A+U는 '지속가능성 연구'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이 시리즈는 도시, 건축과 직면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동

향을 보고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Adam Yarinsky가 최근의 많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뉴욕 시의 상황을 보고한다. 이번 호는 또한 미국 동부 해안과 뉴욕 시에 자리를 잡은 젊은 건축사 그룹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디자인 방법을 소개한다. Daisuke Hirose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예견한다.

'디지털 장비를 건축적 교육에 채택하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는 디지털 장비가 실험적 용도가 아닌 실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이 친환경적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계속 개발되고 있다. 환경과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기술적 도움 없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실은 아마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Polshek Partnership Architects
The Standard New York
New York, New York, USA 2004~2009



Andre Balazs Properties Standard 브랜드는 특징적인 건축 스타일이 없다. 각각의 호텔들이 모두 독특한 스타일이다. 이 브랜드는 그들만의 context 특유의 디자인으로, 그리고 그들만의 context를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Todd Schliemann은 The Standard New York을 설계하면서 이 권한을 잘 활용하였다. 호텔은 부정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 호텔은 도시의 공과 사의 구분을 흐릿하게 하며 떠 있는 형태가 그것을 떼어냄과 동시에 호텔 그 자체를 거리의 활동 속에 몰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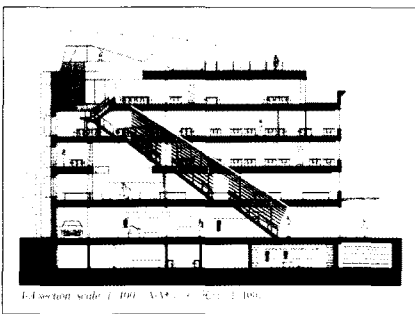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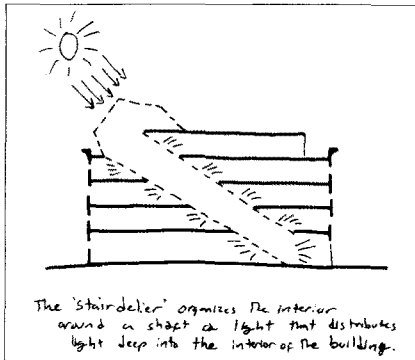
18개 층과 204,500 평방 피트의 337개 룸을 가진 호텔은 2009년 완공되었고 맨해튼 도시 서쪽 끝의 활기찬 지역인 Meatpacking District에 위치한다.

한때는 버려졌던 고가철도이나 지금은 새로운 공원에 본래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High Line(A+U 현재 호)과 호텔이 상호 작용을 하게 될 기회와 도전을 하게 된 것은 이 디자인 덕분이다.

The Standard는 복합성 안에 건축적 컨셉과 구조적 컨셉을 혼합시키고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극명한 차이를 통해 도시적 context를 활용하였다. 직각 격자 형태의 거리로부터 분명하게 빌딩을 분리시키는 형태의 조각 같은 기둥들은, 지상 57 피트 높이로 건물을 들어올리고, 수평적으로 변경된 산업적 풍경이 그 아래를 통과하고 자연광이 거리를 비추게 하였다. 두 개의 빌딩 슬래브는 '경첩을 달고-(hinged)', 각지게 하여 도시 격자와의 차이 및 주변지역보다 위로 부양된 상태를 더욱 강조한다. 빌딩 재료 poured-in-place, board-formed concrete and glass 의 병치는 뉴욕 시의 특성을 반영한다. 콘크리트의 모래 같은 품질은 개량된 유리와는 대조를 보인다. 콘크리트 격자는 연속된 커튼 월의 평평한 면에서 통합된 두 가지 재료인 극도로 투명한 무색투명의 유리(water-white glass)가 필요로 하는 섬세한 프레임이 제공한다.

이 외부의 벽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탈피하여 불투명함을 투명함으로, 사적인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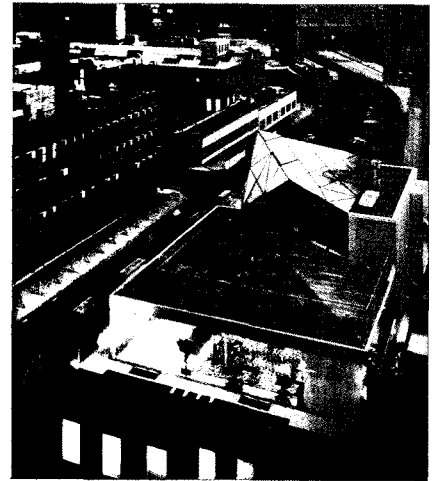
WORK Architecture Company
Diane von Furstenberg Studio
Headquarters
New York, New York, USA 2004~2007



Meatpacking District의 두 개의 역사적 빌딩에 인접하여 위치한, 패션 디자이너 Diane von Furstenberg(DVF)의 새 사옥은 가게, 로비, 쇼룸과 개인 거주공간과 같은 가장 공적인 공간에서부터 가장 사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다. 랜드마크적인 파사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6층 규모의 빌딩이 세워졌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자연 채광을 건물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 WORK Architecture Company는 하나의 상징적 제스처를 제안하였다. 빌딩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빛의 통로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주 가능한 결합 '스태어들이에(stairdelier)'로 생각하였다.

계단(Stair)과 샹들리에(Chandelier)의 혼합인 스타어들이에는 일련의 두 배 높이의 공용 'voids'를 연결하는 한편 채광을 모으고 전체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계단의 꼭대기에서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두 개의 일광 반사 장치 거울이 태양 빛을 전송하여 통로 아래쪽까지 비추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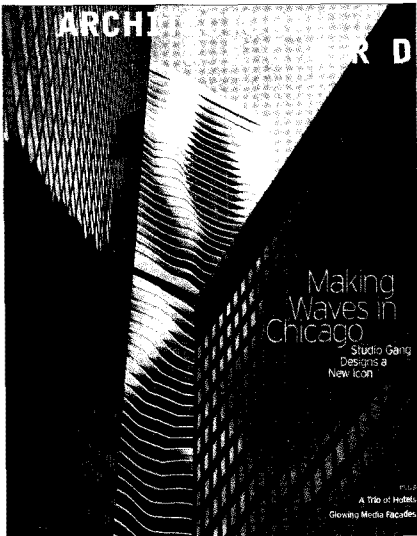
또한, 일련의 3차 프리즘 거울들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계단을 이루는 크리스털로 돌려보낸다. 빛을 비추는 작용 이외에도, 크리스털은 구조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계단의 그물망 난간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케이블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더 나아가 빛의 통로의 물리적 질을 보강해 준다.

외부까지 이르는 빌딩의 새로운 실내 삶의 표현으로써 '스태어들이에'는 주변 지역에 인식 가능한 신호의 기능을 하는 팬트하우스에서 끝이 난다. 다이아몬드 같은 구조는 계단을 따라 있는 공용 'voids'의 마지막 부분이다.

'스태어들이에'의 통합과 비현실적인 질과는 대조적으로 각 층들은 매우 유동적으로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특별함과 기능성을 보여준다.

2층을 쇼룸에서 연회 만찬 홀로 즉시 변형할 수 있는 반면에, 1층의 가게는 거의 가구들로 디자인되었다. 'wrap wall'이다. 바로 유비쿼터스 wrap wall dress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로비에서부터 평면 상 사선으로 가게를 나눈다. ■

김동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by Kim, Dong-bum



이번 호의 표지는 Chicago에 Studio Gang이 새로이 만든 아이콘이며 곡선의 자태를 뽐내는 건물 Aqua이다.

Project 섹션에서는 이 Studio Gang의 Aqua, Shim-Sutcliffe Architects의 Integral House, 그리고 Rogers Stirk Harbour+Partners의 Maggie's Centre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1-10 Studio의 Amangiri Resort, Kuwabara Payne Mckenna Blumberg Architects의 The Study at Yale, 그리고 Kengo Kuma and Associates의 Opposite House에 대해, Books 섹션에서는 'Looking for Answers Beneath the Skin'이라는 주제로 The Making of a Building: A Pragmatist Approach to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Narrative: The Formation of Space and Social Meaning, 그리고 Smart Surface an Their Application in Architecture and Design의 세 권의 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 Books

●The Making of a Building: A Pragmatist Approach to Architecture: by Albena Yaneva, 2009

건물을 만드는 것은 건축사로 하여금 클라

이언트,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공공을 위해 수차례 디자인하고 또 디자인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해야만 한다. 영국 Manchester School of Architecture의 강사인 Albena Yaneva의 이 책은 Metropolitan Architecture(OMA)가 2004년 New York의 Whitney Museum of Art의 증축부분의 잘못된 것을 계속적으로 고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2001년에서 2004년 저자는 OMA의 Rotterdam 사무실에 민족지학자로서 파견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대 건축의 인류학에 대해 연구하고자 건축사를 인터뷰하고 OMA의 무질서하기로 유명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이 책은 유일하게 모델을 만들고 사진을 사모고 동업자들을 만나는 일 등에 있어 건축사의 음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의 스승인 프랑스 사회학자 Bruno Lator는 저자가 보기에는 고립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작은 형태가 사회적 건축이 되어 가는 과정과 건축사가 설계한 건물이 그 주변에 풀어놓아주는 활력, 건물을 둘러싼 사회, 역사, 경제적인 측면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 독자들은 저자의 아이디어의 비약으로 인해 이 디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학구적이고 단조로운 스타일로 쓰여진 이 책은 우리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진 다음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한다.

●The Nature of a House: Building a World That Works: by George M. Woodwell, Island Press, 2009
Smart Surface an Their Application in Architecture and Design: by Thorsten Klooster, 2009

건물의 외피란 무엇인가? 건축의 입장에서 외피란 건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스킨이거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평면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이자 신소재 연구자인 저자 Thorsten Klooster에게 외피는 훨씬 복잡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한 부분에서 끝없

이 작은 '나노'의 수준까지 재료에 대해 조사했다. 저자는 우리를 오즈의 마법사과 같이 건축의 외피라는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다.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외피, 우리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외피,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스스로 회복되는 외피, 자체를 깨끗이 만들거나 열과 냉기를 만들어내거나 역동적인 건축형태를 만들기 위해 형태를 바꾸는 외피 등 다양한 건축재료를 소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타분야에서 개발된 진보된 기술과 이것이 건축재료에 응용된 사례들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와 이론이 연결된 예제들도 제시하고 있다.

■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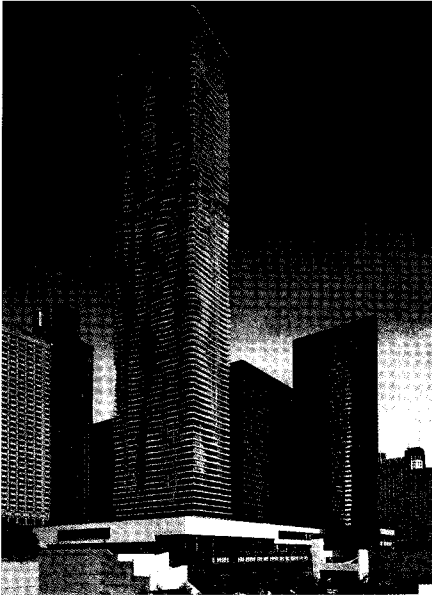
Aqua, Chicago / Studio Gang
Studio Gang은 Chicago의 마천루에 새로운 높이의 건물을 하나 더 창조해 낸다.

시카고의 마천루들은 기술적인 완성도, 기능적인 표현에서 매우 유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면은 다소 부족하다. 이번에 Studio Gang이 설계한 Aqua는 감각적인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흰색의 발코니는 주변의 단조로운 건물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이 82층의 건물의 조망은 남쪽으로는 Millennium Park, Art Institute of Chicago가, 북쪽에는 Chicago River와 Hancock Center가 멀리 보인다. 또한, 이 건물의 특징인 흰색으로 된 곡선 형태의 발코니는 Michigan호와 그 주변을 둘러싼 랜드마크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클라이언트인 Magellan Development Group의 Jim Loewenberg와 Studio Gang의 대표 Jeanne Gang은 Michigan호 끝에 있던 Illinois Central Railroad가 있던 위치에 이 82층의 건물을 함께 계획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쪽에 물이 보이는 전망과 더불어 남쪽에는 시카고 모더니즘의 엄격함을 볼 수 있는 Millennium Park, Art Institute of Chicago가 보인다. 또한, Aqua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축적 형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Bertrand Goldberg의 Marina City(1964)의 두 개의 원통형태



Aqua

의 트윈타워를 많은 발코니를 통해서 희미하게 볼 수 있다.

이 곳에 사는 사람 모두가 불규칙한 곡선 형태에 불박이 형태로 되어 있는 가구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어 이 건축사는 물결치는 듯한 형태를 직선형태의 콘크리트로 감싸기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이 건물의 직교로 교차하는 코어부분은 Chicago의 그리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어떻게 37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동안 해왔던 작업이 소규모의 커뮤니티 센터와 주택이었던 이 건축사사무소가, 또한 여자 건축사가 해내었는가 하는 것이다. 개발자이자 MIT에서 교육받은 건축사인 Loewenberg는 Chicago에서 있었던 Frank Gehry의 강연에서 건축사 Jeanne Gang를 만났다. 그는 Skidmore, Owings & Merrill과 같은 마스터 플래너를 포함하여 그의 계획에 합당한 유명건축사들의 리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초고층건물을 한번도 작업해 보지 않은 젊은 건축사”에게 기회를 줄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University of Illinois, Harbard's Graduate School of Design, 그리고, Zurich에 있는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ETH) 출신인 건축사 Gang은 보다 실용적인 감수성으로 제안을 했다. Loewenberg는 그녀가 초고층 건물에 대한 경험이 한번도 없음에 대해서는 별

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클라 이언트이면서도 전문 건축사였기 때문이다.

Magellan은 이 건물의 발코니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건설비용은 줄일 수 있었으나 겨울에 있을 열손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건축사 Gang은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시카고의 지역난방과 이 아파트의 자연 환기, 그리고 여름의 햇빛의 차단 정도, 그리고 효율적인 유치장의 사용과 같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에너지를 절약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쉬운 것은 좀 먼 거리에서, 혹은 흐린 날씨에 이 건물의 곡선형태는 직선처럼 납작하게 보이며 화이트 콘크리트는 어두워 보이고 호수처럼 디자인 된 유리창은 불규칙하게 무언가를 배어낸 듯한 형태로 보인다.

보기 위한 기계로서(타워에서 도시를, 혹은 도시에서 타워를 보든), 또 시각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매혹적이나 보다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Maggie's Centre, London / Rogers Stirk Harbour+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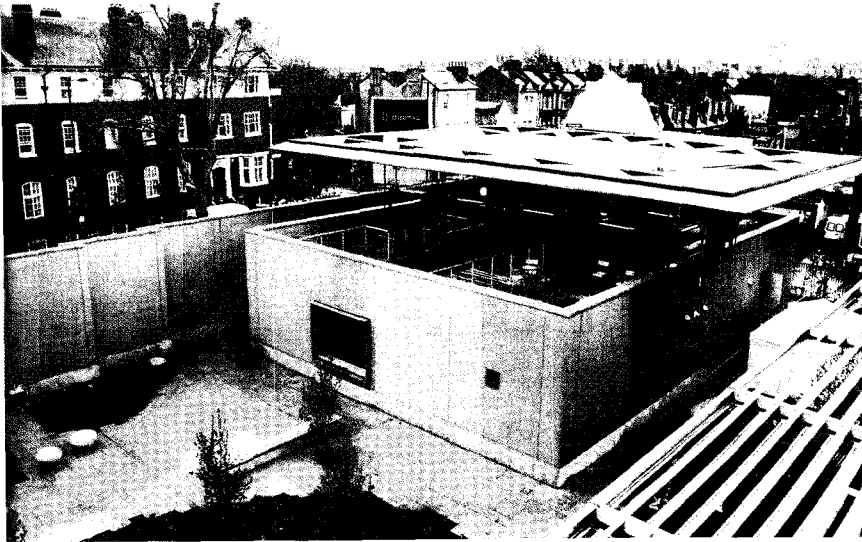
이 새로운 센터는 다른 곳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편안함을 암환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988년 Maggie Keswick Jencks라는 이름을 가진 한 특별한 스코틀랜드 여인은

유방암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엄마였고 중국의 조경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하는 학자였으며 세계 여행가였고 디자이너이자 비평가인 Charles Jencks의 부인이었으며 그녀의 전문분야에서는 성공한 조경디자이너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수술 후 다시 5년 뒤에 암은 재발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간과 뼈, 골수로 암세포가 무차별로 공격해 들어왔다. Maggie는 두 번째 수술에서도 잘 견디어 회복했으나 1995년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삶이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Keswick Jencks를 들보던 의사 중 하나가 그의 의학저널에 그녀가 경험한 것에 관한 글을 하나 써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녀의 에세이 “A View From the Front Line”은 암, 수술에 대처하고 치료의 효험에 대한 혼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절망감과 관련된 그녀의 삶에 대한 매우 사적인 이야기이다. 그녀의 관심은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장소가 매우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주는 곳이어서 이러한 암투병이라는 도전의 기간 속에서 환자들이 느껴야 할 파스함과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었다.

Keswick Jencks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가진 것을 가졌다: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열정과 그녀를 둘러싼 주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녀의 삶에 있어 마지막 몇 년간, 그녀와 남편 Charles는 환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차별화된 공간을 계획하면서 함께 일했다. 병원 근처에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어떤 약속 없이 걸어서 만날 수 있고, 암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나 다른 환자와 그 가족, 혹은 완치된 환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곳이 그 예이다. 방문자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보험의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개인 혹은 그룹치료에 참여하고 음식의 영양에 대한 것이나 스트레스의 감소에 관련해서 배우거나 그 외의 다른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센터의 디자인은 병원과 같아서는 안되었다. 이러한 장소는 규모가 작아야하고 오픈 스페이스, 일조, 색채의 선택적 사용, 식물, 그리고 조경을 강조하여야 한다. Keswick Jencks의 사망 후 그 첫 번째 Maggie's Center가 Edinburgh의 Western General Hospital 근처에 오픈되었다. 여섯 개의 센



Maggie's Centre

터가 지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전적으로 기부
에 의해 건설된다. 센터의 몇 가지는 촉망받
는 건축사 Frank O. Gehry와 Zaha Hadid
가 디자인한 것도 있다.

Rogers Stick Harbour + Partner가
London에 계획한 이 Maggie's Center는
새로이 등장하는 장르에 대한 선물과 같다.
이 건물은 Charing Cross Hospital의 북서
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기분좋은 느낌이
드는 벽돌과 스테코로 된 저층의 이 건물은
매우 정적인 느낌을 준다. 강렬한 주홍색을
가진 이 건물은 한쪽면은 아주 멋진 반면 반
대쪽은 극도로 엄하다는 느낌을 준다.

방문객들은 부분부분 낮은 나무들이 실어
져 있는 중정을 가로질러 센터 건물로 가게
된다. 내부에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알려주
는 것은 건물의 남쪽 벽에 있는 배기장치를



통해서이다. 이곳을 지나 90도를 돌고 또 90
도를 돌면 잘 숨겨진 출입구를 만날 수 있다.
그 효과는 점차 혼잡한 런던의 도심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동선을
건물의 겸손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표
현한다고도 한다. 건축사들은 집값이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원했다.
문의 안쪽은, Maggie's Center를 처음 방문
하는 사람, 즉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두려움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찾기
위한 간절함을 품고 들어올 사람들의 마음가
짐을 헤아림으로부터 시작하여 디자인할 필
요가 있었다. "Edinburgh에 첫 번째로 설립
된 Maggie's Center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데 적어도
세 번은 망설인다는 것과 그리고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
복해야 하고 실제로 자신이 암환자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건
축사는 이야기한다.

Center의 책임자인 Bernie Byrne는 "이
센터는 매우 집값보다 인간적인 면이 돌
보인다." 덧붙인다. 리셉션 장소가 없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환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
록 해준다.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스텝 중 누
군가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모시러 나와서 의
사를 만나게 해준다. 병원이라는 느낌을 최
소화하기 위해 그 어디에서 병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 표시
도 없다.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우
리는 친구에게 화장실이 어디있는 지 물어보

지 화장실 표시를 찾지 않는다."

아주 흐린 1월의 날씨에도 이 곳은 따스하
고 햇빛으로 가득하다. 1층과 2층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며 2층 벽은 완전히 유리로 되
어 있다. 2층의 각 코너는 외부에 데크가 설
치되어 있다.

주홍색으로 코팅된 외부 스테코 벽면은 내
부에서 창을 통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부에서
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자작나무 패널이
내부에 따스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부엌이 1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카운
터, 티백과 찻잔이 놓여있는 선반, 그리고 커
다란 식탁 테이블이 건물 전체의 포인트가
된다. 겨울에는 나무를 때는 스토브가 열기
를 더해준다. 암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갑자
기 느끼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이 세 가지 감
정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다고 Byrne는 이
야기한다. 부엌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
들은 자신이 적극적인 환자가 될 것인가 수
동적인 환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이곳에 앉아서 자기의 머그잔에 차를 가득
담아놓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
기가 오가는지 들을 수도 있으며 환자가 실
제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건물은 2009년에 Sterling 상을 받았
는데 이 건물의 건축사가 Rogers Stick
Harbour였는데 많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왜냐하면 그는 노출된 케이블과 윤이 나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재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건축사였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이 건물의 디테일은 아주 간단
하지만 실제로 건축사가 하려고 노력했던 건
물의 형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 Maggie's
Center는 작업을 해왔던 긴 시간 동안 이 건
축사사 설계했던 작은 건물들 중 하나라고
한다. 오래도록 큰 프로젝트를 다루다보면
이러한 감각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
전히 이런 작은 규모의 건물도 잘 해낼 수있
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건축사
는 이야기한다. ■

최현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